## 고규홍의 '나무 생각'

# 삼만 년을 살아남은 씨앗

연꽃의 계절이다. 폭염과 폭우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닫는 사이에 연꽃이 폭발하듯 피어났다. 성리학을 받들던 조선시대에 선비들은 연꽃을 학문의 궁극 도달점의 상징처럼 여겼다.

애련(愛蓮)은 단순히 식물로서의 연꽃을 좋아한다는 의미에 그치지 않았다. 성리학의 바탕을 확립한 중국 송나라 때의 유학자 주렴계(周濂溪, 1017~1073)가 남긴 '애련설'(愛蓮說)이 그 시작이었다. 천 년쯤 전에 쓰인 '애련설'에서 주렴계는 연꽃을 "진흙에서 나왔지만 더럽지 않고, 맑게 단장했으나 요염하지 않으며, 속이 비었지만 밖은 곧으며, 덩굴지거나 가지를 어지러이 펼치지 않고, 멀리서 바라보아도 향기가 번져오는" 아름다운 꽃으로 예찬했다. 덧붙여 주렴계는 연꽃을 '꽃 중의 군자'라고까지 했다. 짧지만 연꽃의 특징을 적절하게 간파한 명문이다.

성리학을 따르는 유학자들은 주렴계의 '애련설'을 오래도록 읽으며, 자연스레 연꽃에 대한 온갖 상념을 키웠다. 더불어 선비들은 집 앞에 지은 연못에서 손수 연꽃을 키우며 연못을 애련지라 했고, 연못 앞에 정자에는 애련정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창덕궁 후원의 연못이 애련지이고, 그 앞의 정자 이름이 애련정인 것도 주렴계의 '애련설'과 무관하지 않다.

조선시대의 선비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문인 김종후(金鍾厚, 1721~1780)는 한발 더 나아가 '경련설(敬蓮說)'을 지었다. 단지 사랑의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가히 공경할 만한 자연 대상이라고 강조한 것이다. 경련설에서 김종후는 "연꽃을 대할 때마다 반드시 옷깃을 바로 하고 얼굴빛을 고쳤다"고 했다. 꽃 한 송이를 만나기 위해 옷깃을 여미고 낯빛을 고쳐야 했다는 옛 선비의 자연관이 놀랍다.

조선의 선비들로서야 알 수 없었겠지만, 사실 연꽃은 생명체로서 공경하고도 남을 만큼의 놀라운 신비를 지녔다. 2010년 7월에 발표한 경남 함안 성산산성 발굴 팀의 연구 결과도 그 중 하나다. 발굴 팀은 산성 터에서 연꽃 씨앗을 발견했다. 탄소연대측정법으로 측정한 결과 무려 7백 년 전인 고려 시대 때에 맺은 씨앗이었다. 연구자들이 씨앗을 수습해서 연꽃의 생육 조건을 맞추어 주자, 고려 때의 씨앗은 드디어 칠백 년의 긴 잠에서 깨어나 꿈틀거렸다. 계절의 흐름을 따라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웠으며, 마침내 7월7일에는 꽃을 피웠다.

오래된 씨앗을 개화시킨 우리나라의 첫 사례이지만, 나라 밖에서는 이보다 더 오래된 연꽃 씨앗이 개화한 적도 있다. 일본의 도쿄에서 1951년에 있었던 일이다. 당시 도쿄대 운동장 발굴 작업에서 무려 2천 년 전에 맺은 씨앗이 발견됐고, 식물학자인 오가 이치로(1883~1965)박사는 이듬해인 1952년 7월 18일에 핑크색 꽃송이를 피워내는 데에 성공했다.

연꽃보다 더 오래 살아온 생명도 있다. 지난 2011년에 발표한 러시아 과학자들의 연구 성과다. 시베리아 툰드라지대의 지질 탐사 과정에서 발견된 다람쥐 굴 안에서 찾은 석죽과(우리나라의 패랭이꽃이 속한 식물군) 식물의 씨앗 이야기다. 실레네 스테노필라(Silene stenophylla)라는 학명을 가진 이 식물의 씨앗은 무려 3만 년 전에 맺은 씨앗으로 확인됐다. 이 씨앗 역시 함안 성산산성이나 도쿄대 운동장에서 발견한 연꽃 씨앗과 같은 방법으로 개화하는 데에 성공했다.

모든 식물의 씨앗이 이처럼 오래 살아가는 건 물론 아니다. 어떤 식물은 고작 1년을 넘기면 생명을 잃고 만다. 하지만 우리 곁에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는 숱하게 많은 생명은 제가끔 자기만의 신비를 가졌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생명이란 무엇인가를 궁리해 왔고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 생명의 일부 사실을 하나둘 알아가고는 있지만, 생명은 여전히 신비의 대상이다. 알려진 것보다 알려지지 않은 게 훨씬 더 많은 게 생명이다.

언어로 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의 경우는 더 그렇다. 폭염의 계절에 폭발적으로 온 연못을 뒤덮고 있는 연꽃 한 송이를 찾아 길 떠나기에 앞서 '옷깃을 여미고 낯빛을 고쳐야' 했던 조선의 선비 김종후의 이야기를 되새겨야 할 이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은가. 〈나무 칼럼니스트〉

## 삶과 교육

# 갈수록 저하되는 기초학습 능력 -일반계 고교 이대로 좋은가〈上〉

이 정 선
광주교대 교수·전 총장

미국의 인류학자 오그부(Ogbu)는 동일한 유전인자와 문화적 유산을 가진 특정 민족이 어떻게 해서 한 지역에서는 성공하는데 다른 지역에서는 실패하는가를 연구했다. 그는 같은 DNA와 문화적 유산을 가진 아프리카 흑인이 미국으로 이민 간 경우와 불란서로 이민 간 경우 왜 특정 지역에서 성공과 실패가 상대적으로 많고 적은가를 규명하였다.

무슨 거창한 이론을 발견한 것도 아닌데도, 그가 주목을 받은 이유는 인간 행동에 있어서 입문 동기의 중요성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을 부각시켰기 때문이다. 즉 자발적 이민자와 비자발적 이민자가 취하는 사소한 태도와 삶의 방식의 차이가 결과적으로 이민국에서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자기가 좋아서 선택한 자발적 이민자는 셋방살이의 어려움에서 오는 온갖 차별과 역경 그리고 불편함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지만, 끌려서 온 비자발적 이민자는 조그만 어려움 앞에서도 숙명적이고 체념적 태도와 가치관을 갖게 되고 오히려 반사회적 저항 문화를 형성하기까지 한다는 것이다. 국제 간 이동뿐만 아니라 특정 조직에 입문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핵심은 역경을 어떻게 성취동기로 승화시킬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학교교육도 마찬가지이다. 자발적으로 입문하는 사람과 하기 싫은 것을 시켜서 억지로 하는 사람 간에 어찌 결과가 같을 수 있겠는가? 서로 다른 입문 동기 즉 자기 의지와 반하여 싫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끌려가는' 학생과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걸어 들어가는' 학생은 학교생활 전반에서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비자발적 입문자도 모두 다 꿈을 꾸게 하는 학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마는….

우리 지역의 경우 특성화계 고등학교에 대한 인기가 적지 않아서 중학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도 특성화고를 선호한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일반계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성적으로 보면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곤 한다.

즉 한편으로는 중학교까지 성적이 비교적 우수하고 그래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특성화고를 지망하려 했지만 수요공급의 불균형 탓에 진학이 불가능해서 일반계고로 진학한 학생들이 그 경우이다. 오그부 식으로 나누어 보면 전자는 자발적 입문자요 후자는 비자발적 입문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문제는 비자발적 입문자에게서 더 많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비자발적 입문자로 인하여 자발적 입문자들 역시 부정적 영향을 받는다는데 있다. 실상 비자발적 입문자는 자기의 의지에 반하여 진학을 했고 공부에 관심이 없다 보니 수업시간이 즐거울 리가 없다. 학업에 크게 가치를 두지 않기 때문에 엎드려 잠을 자거나 딴짓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한다. 결과적으로 꿈을 잃어버린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힘들어 하는데, 우리 지역에서만 일년이면 1500명 이상씩 학교를 중퇴하고 학교 밖으로 내몰린다. 이들은 학교 밖에서 장래를 위한 자기 계발이나 건설적인 투자보다는 주로 시간제 알바를 하거나 피시방을 전전하며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학교 안에 남아 있는 비자발적 입문자들도 학교생활이 괴롭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이들의 괴로움이 그냥 개인적 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긍정적이고 밝은 바이러스보다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더 빨리 확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교실 내에서 비자발적 입문자들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일선 교사들에 따르면 상위권 학생들마저도 부정적 분위기에 편승하여 최선을 다해 공부하는 분위기가 아니라고 한다. 우리 지역의 기초학습 능력이 갈수록 저하되는 이유란다.

그러면 왜 이들은 비자발적 입문자가 되었는가? 일생 중 가장 중요한 시기에 미래가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도 부족할 것인데, 그것은 고사하고 기초학습 능력의 결손과 학구적 무기력감 그리고 의욕이 상실된 학생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인가? 더 나아가 학업 포기 내지는 학교를 중단하게 되었는가?

지금이라도 이들로 하여금 잃어버린 꿈을 되찾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동시에 모두가 꿈을 꿀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우리는 그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보아야 할 시점에 와 있다. 단순히 특목고, 외고, 자사고를 폐지하는 데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의 이분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이 진학하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일차적으로 모든 에너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 기 고

# 도시공원 일몰제 해결 국가가 나서야

백 종 한
서구의회 의원

자치단체에서 묶어 놓고 개발하지 못한 공원부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해 오는 2020년 7월이 되면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라 공원에서 해제된다. 헌법재판소가 구(舊) 도시계획법 제4조에 대해 지자체가 특정 땅을 공원·도로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해 놓고 장기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헌법 불합치'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광주시의 경우 모든 토지를 매입하지 못한 채 조성된 도시공원이 총 25개소, 면적은 11㎢에 달하며 이 부지를 매입하려면 2조7000억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이중 규모가 작거나 토지가 일정 규모 이상 매입된 15개 공원을 제외하고 마륵·수랑·봉산·송암·중앙·중외·일곡·송정·신용·영산강 등 10개 공원을 대상으로 1·2단계로 나눠 특례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10개 공원 총 면적은 약 956만㎡에 달한다.

정부가 제안한 해결책은 민간공원특례 제도이다. 미 조성된 5만㎡ 이상의 도시공원 30%는 수익시설을 설치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이다.

광주시도 이와 동일한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그대로 도입하고 있는데, 위 1단계 특례사업은 마륵 근린공원 등 4곳으로 54개 업체 95개의 의향서가 접수됐다. 2단계 특례사업은 광주에서 가장 넓은 공원부지가 있는데다가 노른자위 땅으로 꼽히는 중앙 근린공원 등 6곳으로 위 1단계와 같은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광주시에서 추진하는 위 10개 공원의 총 면적은 위와 같이 약 956만㎡에 달한다. 이 중 30%를 개발할 경우 비공원 시설 면적은 287만㎡에 이른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의 개발권을 보장하는 민간공원특례 제도는 공모 방식이 아니라 민간 제안 사업이 주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공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다. 위와 같이 진행된다면 현재의 도시공원은 공공성이 후퇴된 민간사업자의 계획서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사업에 포함된 도심공원은 넓은 부지를 바탕으로 하는 공원의 특성상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수밖에 없다"는 등 비판과 함께 특례 제도의 한계를 지적한다.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의 다수가 일제강점기부터 70년대까지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지만, 1993년 지방자치단체 제도가 도입된 이후 도시공원 및 녹지의 조성과 관리 업무는 정부로부터 지자체로 이관되었다. 문제는 중앙정부가 만들어놓고 해결은 지자체가 맡게 된 형국이다. 유사 도시계획시설인 광역도로, 광역철도에는 상당한 국비가 지원되고 있지만 장기 미집행 공원의 해소를 위한 국비 지원은 대단히 인색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은 법률을 통해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중앙정부의 정책수립(판단)을 통해 조속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 결자해지의 논리로 나라에서 지정 고시한 도시공원의 조성 비용에 국고 지원을 정책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하여야 한다. 지방정부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 지방자치법 제142조를 근거로 특별회계, 조성기금, 지방채 등의 재정 확보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재정 현실상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예산을 들여 공원을 유지하는 국가도시공원 지정, 국유지의 실효 대상 제외, 국유지 무상 임여, 국유지 보전산지 지정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 이 같은 방안이 제시돼야 공원녹지 우선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재정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모두 동의할 것이다.

광주시도 사업자가 중심이 되는 제안서 심사 위주의 개발사업자 선정보다는 환경보존과 공익성을 고려한 사업자 선정 기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인 구도 최소한의 공공성을 보장할 기준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도시화된 지역일수록 허파와 같은 역할을 하는 숲·하천의 자연 환경 보존과 생태 환경을 보존하는 것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미래의 바람직한 방향이다. 공원일몰제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 社 說

# 풍암호수 녹조 바라보고만 있을 것인가

광주 풍암동 호수공원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곳으로, 현재 하루 평균 3000여 명이 찾고 있다. 이처럼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풍암호수에서 매년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데다 올 여름엔 악취까지 진동해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서구 주민은 물론 광주 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 휴식처 중 한 곳인 '풍암동 호수공원'의 녹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요즘은 나무다리가 설치된 곳에서 녹조가 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 물이 고여 있는 담수호인데다 연일 계속되는 고온 그리고 주변에서 흘러드는 생활폐수 등의 복합적인 영향으로 녹조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추정이 있을 뿐이다.

녹조와 악취로 인해 이를 시정해 달라는 시민들의 민원도 크게 늘었다. 최근 서구 민원실에는 폐수 유입을 찾아서 단속해야 한다는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는데 이 같은 민원이 연간 100여 건에 이를 정도다. 이처럼 매년 민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호수공원을 관리하는 서구와 수질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구의 경우 민원이 들어오면 악취가 나거나 녹조가 발생한 곳에 유용미생물 용액을 살포하는 게 대책의 전부다. 수질을 관리하는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2년과 2015년 총 2억 원을 들여 태양열과 전기로 작동하는 물 순환장치 7개를 설치했으나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제 풍암호수의 녹조와 악취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노력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먼저 효과가 없는 물 순환장치의 부실시공 여부부터 조사해야 할 것이다. 언제까지 "기존에 있던 물을 빼고 다시 새 물을 채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예산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인가.

# 돈벌이에만 급급 이름뿐인 '공영주차장'

전남대 후문과 광주 북구청 주변 '용봉천 복개지 공영주차장'이 규정을 어긴 마구잡이 주차로 시민들의 불편과 원성이 높다. 여기에 운영을 맡은 민간업체가 오로지 수익성만 추구하는 '돈벌이 주차'로 극심한 교통 혼잡까지 불러 일으키고 있다. 공영주차장이라지만 무늬만 '공영'인 셈이다.

용봉천 복개지 공영주차장은 도로 양쪽 한 개 차로씩을 노면 주차장으로 조성, 전남대 후문 쪽은 차선 방향과 동일하게 주차하는 평행주차장이며 반대쪽은 사선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주차장은 평일에도 오후만 되면 빈자리 찾기가 쉽지 않은데, 금요일 오후부터 주말·휴일 사이에는 그야말로 교통지옥이 따로 없다.

문제는 주차장을 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민간업체가 한정된 주차 면에 한 대라도 더 주차할 수 있도록 꼼수를 쓰면서 혼잡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이 주차장이 규정대로 75대만을 수용하면, 도로 양쪽에 불법 주정차가 불가능해 교통 혼잡 시간대에도 원활한 흐름이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운영 업체가 평행주차장의 경우 차량 4대를 주차하는 면적에 5대를 붙여서 주차하는 것은 기본이고, 손님이 몰릴 때는 평행주차장에 사선주차를 유도해 주차 대수를 배로 늘리는 편법을 쓰고 있다.

이로 인해 주차된 차량이 도로의 일부를 넘어오면서 통행 차량의 불편은 물론 크고 작은 접촉 사고도 일어난다고 한다. 게다가 15분에 150원인 요금 체계상 지폐를 낼 경우 동전을 거슬러 줘야 하지만 주차 요원들이 거스름돈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이용자들은 불쾌감을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불·편법 주차 지적에도 민간업체는 "수지를 맞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구청은 시민 불편 해소와 교통질서 차원에서 복개지 공영주차장의 불·편법 주차를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다.

## 無 等 鼓

### 돈제일주(豚蹄一酒)

사마천의 '사기'(史記)에는 수많은 인물이 등장한다. 기지가 넘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골계열전(滑稽列傳)에 실려 있는데, 그 으뜸은 춘추전국시대 제나라의 순우곤이다.

초나라가 침입해 오자 왕은 그에게 조나라에 가 원군을 요청하라고 지시한다. 그리고 조나라에 건넬 선물로 금 100근과 차마 40필을 내밀었다. 이를 본 순우곤은 크게 웃었는데, 고개를 어찌나 젖혔는지 관의 끈이 끊어질 정도였다.

왕이 웃는 이유를 묻자 그가 답했다. "얼마 전 제가 동쪽으로부터 오다가 길가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돼지 발굽 하나와 술 한 잔을 올리고는 '높은 골짜기에는 그릇에 가득한 수확, 낮은 들판에는 수레에 가득 찬 수확, 오곡이 모두 잘 익어서 집안 구석구석에 가득 차도록 해 주옵소서'라고 빌고 있었습니다. 신(臣)은 그가 바친 것은 너무나 적고 바라는 것은 많은 것이 문득 생각나서 웃은 것뿐입니다." 준비나 노력 없이 성과를 바라는 세태를 꼬집는 돈제일주(豚蹄一酒)의 고사다.

지금까지 정부는 건설 업체들의 '아파트 짓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면서 도시를 '삶의 공간'이 아니라 '거래의 공간'으로 만들어 버렸다. 온 국민이 아파트 분양과 투자에 관심을 쏟고, 살지도 않을 아파트를 사고팔면서 프리미엄(차익)을 남기는 데 혈안이 된 것도 정부와 지자체가 도시를 방치한 결과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문재인 정부의 대표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재생사업 기획단'을 출범시켰다. 모든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힘을 쏟아도 어려운 판에, '부수고 짓는 것'에 익숙한 국토부가 이 사업의 키를 잡았다. 매년 10조 원, 5년간 50조 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하는데, 세세한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계속돼 온 '도시 재생' 사업과 정책의 생채기가 도시 곳곳에 남아있는데도 그에 대한 반성도 전혀 없다. 과거 정부의 도시 재생이 그대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좋은 뜻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윤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정치부 220-0632 사회부 220-0642 사회2부 220-0652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문화부 220-0661 문화미디어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사진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FAX 227-95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십시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54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